



Seoul Toilet Fair 2001

특집 “2001 서울화장실문화전” 개최

편집부



서울화장실문화전이 열린 세종문화회관▶

이번 문화 전에는 서울시가 주관하고 웰컴투코리아 시민협의회,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화장실문화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01년 6월 1일 ~ 6월 4일(4일간) 세종문화회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렸다.

서울시는 인구 1,100만의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 2002월드컵이 개최되고 또한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화장실문화수준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2001서울화장실문화전(2001 Seoul toilet fair)”이라는 주제로 화장실관련 문예작품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의식의 개선과 시설의 수준향상을 위해 각종 문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문화운동 및 행사의 하나로 이번 화장실문화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시에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인 캠페인과 함께 우수화장실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하여 화장실관리자 교육을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1서울화장실문화전”은 세종문화회관 특별전시실에서 화장실사진전 및 용품전시회를 함께 개최하여 화장실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시설용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2002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행사의 주된 내용은 6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특별시(시장 : 고건) 및 웰컴투코리아 시민협의회(회장 : 최불암)를 비롯하여 여러 내빈이 참석한

“2001서울화장실문화전”의 특징은 기존의 시설개선 우선정책에서 화장실관련 문예작품 및 사진 공모전 등 문화전을 계기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의 변화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찾는 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화장실 관련용품 전시 (19개 업체참여)



2001 서울화장실문화 사진공모전 수상작

좌측부터...

대상 / 호기심 (안현수), 금상 / 청결한 아름다움 (임윤정), 금상 / 뒷간 (조옥수), 은상 / 등대와 조개 화장실 (정현택)

가운데 개막행사가 열렸으며, 화장실관련 문예작품 및 사진공모전에서 뽑힌 사진과 화장실에 관련된 업체(로얄토토금속 외 18개 업체참여)의 용품전시를 함께 병행하여 화장실설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였으며, 프리젠테이션 및 화장실관련 캠페인도 함께 벌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고 화장실 관련 설계부년도 전시하여 화장실 설계의 표준화 및 설비기준, 유지관리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된 사진공모전은 홍보부족과 사진인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사진이 출품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의외로 훌륭한 사진이 많았으며 어려운 환경조건인 좁은 공간의 실내촬영을 무리 없이

소화해낸 작품이 많았다. 출품되어진 사진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이 화장실에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모전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도 덧붙인다.

그러나 “2001 서울화장실문화전”이 갖는 더욱 큰 의미를 찾자면 화장실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잠긴 화장실의 개방과 악취와 불결함이 있는 화장실에서 휴식과 사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공간으로의 변화, 그리고 사용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을 높여 늘 내 것처럼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을 때 우리의 화장실문화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